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1년도 표어 ☉

다음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 마28:18-20)

☉ 행동지침 ☉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주요 강단 - 룯기

선택의 성경적 기준

(룯기 4:1-12)

The biblical criterion of choice

(Ruth 4:1-12)

인생은 선택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선택의 성경적 기준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본문에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보아스이고, 또 한 사람은 룯의 기업을 무를 수 있었던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입니다. 보아스는 성경적 선택을 할 수 있었기에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세속적 기준의 선택을 하므로 기회를 놓친 자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박노철 목사

Life is a choice. Life is determined by what we choose. If this is so, then what criterion should we use to choose? If we clearly know what the biblical criterion of choice is, it will be the most important gift we can receive to live our lives. In our passage, we see two persons standing at a crossroad. One was Boaz, and the other was a relative closer than Boaz who could redeem Ruth. Because Boaz took the biblical choice, he was able to continue the Messiah's bloodline. The other became a symbol of lost opportunity because he took the worldly option.

1. 잘못된 선택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나오미의 친척에게는 룯의 남편이 될 수 있는 우선권이 있었고 경제적인 능력도 있던 사람으로 명분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유는 자신에게 손해가 날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6절).

1. The wrong choice

Naomi's relative, whose name is not given, had the priority of becoming Ruth's husband. He had financial power, and he was capable of upholding her cause. But he gave up his right, because he was afraid of endangering his own estate (v. 6).

사람들은 흔히 이익만을 추구하며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일이 덕을 세우는 것인지, 원칙에 근거해서 옳은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적 원칙에 근거해서 과감하게 손해를 감수하며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나침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룯의 기업을 무를 수 있는 더 가까운 친족은 눈에 보이는 이익과 손해를 따라 선택했기에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삶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In general, people always seek a profit when they make a decision. However, Christians must think about whether it is virtuous, whether it is right according to principle, and whether it pleases God. When we make a choice based on biblical principles, and we are resolved to bear the loss as a result, we fulfill our role as a compass in the world as God's people. The closer relative, who could have redeemed Ruth, chose instead to profit and not take a loss according to what he could see. But Boaz, who could enter into the Messiah's genealogy, gave up his chance for a blessed life to live for the glory of God's kingdom.

2. 보아스의 선택

보아스는 책임과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룯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2. Boaz's choice

Boaz chose Ruth, according to the criterion of duty and love. He didn't avoid his responsibility.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문제는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내된 자가, 남편된 자가, 자녀들이, 교사들이, 정치인들이,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므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와 부흥은 언제 옵니까?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 할 때, 아무리 큰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책임을 다할 때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된 우리들이 맡은바 책임을 다 할 때 교회가 힘 있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Nowadays, a common problem all around us is that we live trying to avoid responsibility. Since wives, husbands, children, teachers, politicians, and even Christians shirk their responsibility, we see families, churches, and our country in difficulties. How do we find real victory and revival? It comes to us when we keep up our end of responsibility and carry it out, no matter how much the loss may be. The church community must have this kind of responsibility. When Christians carry out their responsibility, churches can find revival.

무엇보다 보아스는 룯을 사랑했습니다. 룯이 비록 자신의 밭에서 이삭이나 쭉는 가난한 여인이었지만 보아스는 자신에게 돌아올 손해는 전혀 개의치 않고 룯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의 마음은 모든 것을 다 복되게 합니다. 선택에 있어서 사랑의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바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칠 때, 우리는 책임을 넘어서 기쁨과 감사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First of all, Boaz loved Ruth. Although Ruth was a poor woman who picked up leftover grain in his field, Boaz did not consider her a loss. Rather, he loved her. A loving heart makes everything blessed. The criterion of love is very important in making a choice. Jesus Christ's love must be poured into our heart so that we can make the right decision. When Jesus' love fills up our heart to overflowing, we can do our duty with joy and thankfulness that goes beyond responsibility.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오늘부터 우리가 하는 선택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과 손해를 따르지 않는, 크리스천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선택,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선택, 논리를 뛰어넘고, 이성을 초월하는 성경적 선택을 하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My beloved Christians!

From now on, our future will be made by our choices. We must choose to perform our duty in a way that does not follow after profit and seeks to avoid loss. By choosing the criterion of love and making biblical choices that go beyond reason and logic, I earnestly pray that you will be a people of God preciousely used by Him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제39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2011년 전반기 열린 프로그램 개강

목회자신학세미나 : 3월7일(월)~5월9일(월)까지 10주간 서울음악교실 오늘 개강(오후 1시30분, 601호)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설교와 그 준비"를 주제로 3월7일(월)부터 제39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가 개강한다. 5월9일(월)까지 10주간 진행되는 세미나는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리며 1교시(2:00-3:30)는 허 주 교수가 데살로니가전·후서 강해를 하고, 2교시(3:50-5:20)는 주제에 따라

10명의 교수들이 강의를 진행한다.

또한 2011년 전반기 열린프로그램이 오늘 서울음악교실(오후 1시30분, 601호) 개강을 시작으로 일제히 개강한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종윤 원로목사 주안대학원대학교 개교감사에배에서 설교

우리교회 이종윤 원로목사는 지난 3월2일(수) 주안대학원대학교 개교감사에배에서 설교하였다. 주안대학원대학교는 10여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식인증을 받은 국내 최초 선교전문 교육기관으로 "3천명

선교사 파송"비전을 목표로 하고있다. 이날 감사예배에서 이종윤 목사님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를 제목으로 설교하였으며 행함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아름답고 복된 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서울교회 다락방 새롭게 출항

다락방장/부다락방장 419명 훈련에 참여



지난 수요일 1, 2부 예배후 새로운 다락방 사역을 위한 교구일꾼 수련회가 있었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수련회 말씀을 연 박노철 목사는 교회가 예수님의 두 가지 명령, 곧 사랑의 명령과 전도의 명령을 실천하

기 위한 통로로 다락방 사역(Cell Ministry)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며 교회가 성경적 교회 모습으로 지속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훈련이 필요불가결하다고 했다.

박노철 목사는 다락방 사역이야말로 성경적 요구이고 이는 자신의 목회 비전이기도 하며 다락방을 통한 돌봄과 영적 성숙은 궁극적으로 교회 부흥과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이 일을 위해 다락방장들이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날 수련회에는 419명이 참석했으며 앞으로 다락방장 교육은 수요일 1, 2부 예배 후 박 목사의 인도로 한 시간씩 있게 되는데 다락방장과 부다락방 모두는 빠짐없이 참석하여야 한다.

아울러 순례자는 모범적인 다락방과 변화하고 부흥하는 다락방 등의 사례를 계속적으로 소개하기로 하고 원고는 교구 목사를 통하여 받는다.



지난 3월 4일(금) 인민교수 초청 특별금요기도회가 있었다. 본당 2층과 3층을 가득 메운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지난 3월2일(수)에 서울교회 본당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 헌신예배 및 세계평·화음악회가 주님의 은혜가운데 마쳤다. 이번 헌신예배와 음악회는 3일(목)에 열렸던 국가조찬기도회의 전야제 행사로 박노철 목사가 "애국하는 교회"(금전 2:1-2)를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6일째인 수요일(금년은 3월 9일)로부터 시작된다. 사순절은 회개와 영적 생활의 갱신을 도모하는 절기이다. 이 절기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죄를 고백하며 복음서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일에 힘써야 한다. 사순절을 40일이 아니라, 46일 동안 지키는 까닭은 이 기간에 있는 여섯 번의 주일은 참회의 날의 의미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로 지키기 때문이다.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일은 고난주간으로 지키는데 이 기간에는 특별히 결혼식 및 축하 행사를 하지 않는다. 금년도 부활절은 4월 24일이다.

학습·세례식

3월9일(수) 수요일 1, 2부 예배시간에

금년 첫 학습·세례식이 3월9일(수) 수요일 1, 2부 예배시간에 거행된다. 서울교회는 매년 짝수달(격월) 3째주 수요일 1, 2부 예배시에 학습·세례식을 거행하고 있다. 이번 학습·세례식은 2월23일(수) 공군사관학교 임관예배 및 세례식 행사와 3월2일(수) 국가조찬기도회 헌신예배와 세계평·화음악회로 인하여 부득불 3월9일(수)로 연기된 것이다.

1부예배·영어예배 오르가니스트 임명

1부예배 : 차주연 선생
영어예배 : 최수황 선생

우리 교회 당회는 1부 예배 오르가니스트 오자경 집사의 개인적 사유로 인한 사임으로 인하여 그 후임으로 현재 영어예배부 오르가니스트인 차주연 선생을 1부 오르가니스트로, 공석이 된 영어예배부 오르가니스트로 새로이 최수황 선생을 임명하였다.

최수황 선생(1969년8월24일생)은 이화여자대학교 종교음악과 졸업, 일본 무장야음악대학 대학원 음악학과(Musashino Academi Musicae) 졸업, 한세대학교 음악대학, Rutgers University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들은 오늘부터 예배 반주를 시작한다.

Vision2020 후원자

김재용(김재영) 김경복 김태삼 고석태(장효정) 김기욱(권영월) 고아라(고요한) 박길자 백승갑 박순자 이난희 이민숙 유관도 이진희 이상은 진돈 정인건(남영주) 최정인 최임수 최형석(황영숙) 이삭선교회

교회를 섬기는 교회

제39학기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하며



오광환 장로
(한국교회 갱신연구원 원장)

서울교회가 교회장립 때부터 한국 교회 일선 목회자들의 당면과제였던 교회의 변화와 목회자 갱신의 요구에 따라 '학문적 지고성' (學問的 至高性 : Academic Excellence)과 '영적 성숙' (靈的 成熟 Spiritual Maturity)을 지향하는 '목회자 세미나'를 시작 운영했습니다.

그동안 목회자 세미나는 Text(성경)과 Context(상황)을 잘 조화시킨 커리큘럼으로 한학기 10주간 매주 월요일 1교시에는 이종운 목사님의 성경강해와 2교시에는 매학기 단일 주제로 신학계석학들의 강의로 목회자들의 영적갱신, 신학적 재교육을 하며 '하나님 중심, 성경중심, 교회중심'의 목회를 위한 강의로 진행돼 왔습니다.

설립 후 10여년을 YMCA강당을 빌려 집 포장 운반, 강의실 의자 설치, 방송실 점검, 식사준비 및 배식, 주차

안내, 등록접수, 테이프, 서적판매관리, 청소 등 봉사와 섬김으로 이어져 왔고, 2001년 19학기부터 새 예배당에서 계속되어 지난 38학기까지 본 세미나 등록연인원이 14,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 제39학기는 서울교회 제2대목사로 박노철목사님이 이어받아 열리는 첫학기이기 때문에 국내교계와 많은 교회 특히 김치(KIMCHI 한국교회갱신연구원)동문들의 깊은 관심과 열망속에 개최됩니다.

오는 3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매주 월요일 1층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제1교시(오후2시~3시30분)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의 교수이신 허주 박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강해」, 제2교시(3시50분~5시 20분)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설교와 그 준비?"라는 주제에 따라 10명의 강사들이 10주간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참가하여 바른 말씀을 받아 영적갱신이 될 때 한국교회 강단이 새로워지고 많은 성도들이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생활을 하게 되어 한국사회의 문화의 기독교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

봄소식

대 자연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낙원에,
매화는 얼었던 눈을 녹이면서 웃음을 띠우며,
바람은 꽃나무 가지를 흔들며,
지저거리는 새들의 노래를 들으며
이곳 저곳을 드나들고,

개나리는 골든 벨을 울리며,
진달래는 나팔을 불고,
귀퉁이를 자랑하노라.

자연 안에서 모든 만물에게,
꽃들은 향기를 마음껏 뿜겠노라,
추위도 때를 따라 시간을 알리며 피겠노라.
열매를 주어 먹이도, 약도 주겠노라,
꿈과 희망을 주겠노라고 속삭이며...

봄을 즐기던 이들은 꽃들의 대화에
감동을 받고 매혹 되어
태양이 따스하게 내려쬐는 봄빛 나무 밑에
가슴을 펴고 앉아
멀리 아른거리는 아지랑이 속에...
나는 무엇을 자랑하나?

그때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 나타난 것은
아! 하나님의 사랑의 꽃,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영원함과 부활의 소망을,
이제는 깨달았노라.

사랑의 꽃은 위상이 높고 아름다우며
이 꽃 속에는 햇빛처럼 내려쬐는
수억광년 이상의 사랑,
그 사랑만을 믿고 살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 잔치에 초대 되리라.
주님의 꽃의 향연을 위해
만방 땅 끝까지 자랑스럽게 전하겠노라.

글, 그림 오영숙권사(12교구)



수련회를 마치고

명예로운 삶을 사는 것

최원석 집사(제2스데반회 부서기)

이번 수련회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요15:12)"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스테반회원 상호간에 더욱 잘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심한 독감으로 고생하시면서도 먼 길을 오시어 열강 해주신 박노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지나치는 성도가 아니라 함께 게임하고 식사하고, 오가는 차안에서의 교제 등을 통해 회원들간에 더욱 친해 질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였습니다. 앞으로 스테반회원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그럴수록 상호회원들간의 관심과 사랑과 배려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고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스테반회에 주신 사명을 더욱 충실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금년 초에 이종운 원로목사님이 스테반회에 당부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먼저 남은 그릇터기가 되어달라고 하시면서 성수주일하며 신행일치의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드려 하나님 면전에서 부끄럽지 않은 교회를 만드는데 스테반회원들의 역할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스테반회는 장로가 되는 통과과정이나 아니라 안수집사로서의 직분에 맞는 교회에서의 역할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스테반회원이 다른 성도와 차별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며 안수집사로서의 자긍심과 명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복있는 사람

김예환 권사(제1권사회장)

얼음물 한모금 먹고, 나무 키 끝까지 물을 올리며 몸통을 불리고, 뜨거운 혀로 짖을 내미는 생명의 계절에 박노철 목사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첫 수련회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의 위상을 높이셨고 격려도 해주셨으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한통의 편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거기엔 "복있는 사람"이란 나무가 그려져 있었고 그 나무는 시냇가에 심어져 있는 사시사철 잎이 마르지 않는 아름답기 나무였으며 그 나무에는 복, 복, 복...이란 많은 열매가 달려 있었습니다.

성령내비는 알록달록 꽃인 우리를 찾으셨고 부르셨으니 은혜를 선물로 받은 우리는 감사, 감격입니다. 또

성령내비는 꽃이 열매를 맺는 역할도 하십니다.

죄를 멀리할 때에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 때에야만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복이며 그 복은 우리의 순종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합환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겨, 묵은 것으로 마련 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 둔 것이로다."(아가 7:13)

찬양의 열매, 구제의 열매, 선교의 열매, 또 다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열매들... 수련회에 함께한 사랑하는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의 아름답기 나무에는 축복의 열매로 가득합니다. 축복의 열매를 가득 담은 권사님들 얼굴엔 행복한 미소가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갑니다.



천국시민양성-어린이수요예배

어린이 수요예배로 오세요

차도훈 집사(어린이 수요 예배 부장)

학교성적 1-2점에 울고, 웃는 요즘 아이들과 자녀들의 교육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 대치동의 학부모들로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광경이 매주 수요일 오후 4시30분이 되면 서울교회당 6층에서 예배를 통하여 반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형통한 삶의 기본임을 체험하고 알기에 귀중한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아름다운 계대를 이어가게 하고자 세상적인 기준의 교육열풍에 과감히 맞서 학원의 수업시간까지도 조정하여 가며 자녀들을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심혈을

기울이는 '21세기 한나' - 어린이 수요 예배 어머니들과 그 자녀들의 견고 뛰어오는 발자국 소리와 웃음소리로 활짝 피어오릅니다.

어린이 수요 예배에서는 1부 예배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박진아 목사님을 통하여 듣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어린이들의 영혼을 생명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먹이고, 평생을 살아가는 길을 밝히고 인도하는 등대를 세워가는 귀한 체험을 갖게 하며, 2부 순서는 주별로 순서를 따라 미술, 찬양, 동화, 성경통독, 체육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좀 더 자유로운 영혼의 썬더와

썬더에서 얻게 되는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 남은 주간을 더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귀한 시간으로 진행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하는 다음세대를 양육하는 어린이 수요 예배는 오직 우리 서울교회에만 있는 예배모임입니다.

부모님들! 진정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로 키우는 어린이 수요예배의 자리로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들! 수요일 오후 5시 603호의 어린이 수요 예배에 꼭 오세요.



특별 찬양

오늘 찬양예배의 특별찬양은 소프라노 최영은 성도의 찬양으로 드린다. 최영은 성도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와 동대학원에서 성악을 전공하였다. 서울 레이다스 싱어즈에서 활동하며 예루살렘 찬양대의 솔로이스트로 봉사하고 있다. 오늘 드릴 찬양곡은 '내가 유발의 하프를 가졌다면 [Joshua(G.F.H?ndel)]' 외 두 곡을 호산나찬양대와 은빛찬양대에서 오르가니스트로 봉사하고 있는 김윤지 성도의 반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동정

- 당선: 김형상 집사(3-6다락방장) 제27대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 이사: 11교구 제영진 성도 송파구 오금동 대림아파트 8동 604호
11교구 김광룡 집사 이정미1 집사 국산옥 권사 송파구 문정동 웨밀리아파트 306동 1201호
- 주간식당봉사: 모세선교회(3.6) 이삭선교회(3.13)
- 금주의 식사제공: 박혁 집사 임영숙 집사 가정 박형수 집사 이경화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2011농어촌100교회운동지원현황 (다음주 계속)

노회	교회명	교역자	후원자	구좌(각)
경안노회	오천교회	한경인 목사	박지운	2
			은기정(김경숙)	1
	두산교회	박이해 전도사	박진희4 정김영 김은경10 양준경(이인숙)	1
			김철진(노의정) 오종원(김연화) 이강진(김신영) 이훈 조용기 김동수2	1
	광은교회	민만기 목사	김철진(노의정) 오종원(김연화) 이강진(김신영) 이훈 조용기 김동수2	1
	주영교회	조준래 목사	이명구(문옥일) 김은정 조순업 1-11다락방	0.5
	안흥교회	김성은 목사	김원중(이갑연) 이복규 김경애 최형열 방계운(박현미)	1
	방하제일교회	최근상 목사	이준호3(이은희) 오유식3	1
			이민희(신순자) 이동만	0.5
	감은교회	고창현 전도사	김해수(윤은) 임종식(신선주) 하인선(남태순) 이성우	1
	울목교회	우성화 전도사	송동선 김형성(최금숙) 문성주 김용환 김지숙4 탁경준	0.5
	부님명성교회	신덕만 목사	김명옥 유문건(김안성)	1
			김복녀 김명비 김상태 김사라	0.5
	팔성교회	박노갑 목사	김만집(이경자) 김광민(박민숙) 임광우(최미희) 한소집(최미아) 류충기 박정수(김경옥) 양지훈(최성희) 박태선(김초일)	1
				0.5
송일교회	정병옥 목사	주경자 박노형(김민정) 구귀순 정동학(김복순) 강낙훈(심성희) 5-12다락방	0.5	
물한동교회	강화심 목사	이영기(이영숙) 이상성(최영란) 최양진(강윤숙) 지성철(유묘중)	1	
이승천교회	이봉우 목사	김준목 이관규 오정수 김재근(안분선10) 홍성주(여현진)	1	
		한상준(임명숙) 허경화	0.5	
셋별교회	최중희 목사	우도현 오지열	0.5	
			0.5	
원호평강교회	전병오 목사	강래래11 조희 이현수 황선옥1 박중권2(김희경2)	1	
		박화실(이은지)	0.5	
원천교회	김도환 목사	윤동수 김동봉 이지동 임영숙	0.5	
			0.5	
용각교회	이연숙 전도사	송영재(함정희)	1	
			1	
병옥교회	김성한 전도사	이영조	1	
			1	
온혜교회	백성웅 목사	안홍희(전화진)	1	
			1	
강원노회	월송교회	남금준 전도사	1	
			1	
화방교회	김원일 목사	박은주12 김권진(왕경애1) 민해정 도르가	0.5	
		전수자 박정선 양은정 육순자 홍석현 빌립	0.5	
작실교회	허만승 목사	노중환 노문환(장정화) 임성현(서희숙) 김재중(김유경) 나미용 정운기(노애리)	1	
		안드레 루디아	0.5	
		김성준(김선영) 강재훈 이근대 이재운 베드로 뵈뵈	1	
		최광성 소은경	0.5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다락방 리더 훈련을 통해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와 열정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2. 제39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와 2011년 전반기 열린 프로그램 가운데 비전의 회복과 영적성장이 경험되게 하소서.
3. 크리스찬 위정자들이 분명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역사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 예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 교회오시는 길

